

시끌벅적 e-스타



MBC 이정민 SBS 김지연 KBS 김경란 SBS 김주희 전 아나운서 임성민

아나운서+만능 엔터테이너 '아나테이너'

'절제되고 딱딱한 이미지의 아나운서의 색다른 모습'

아나운서는 더 이상 딱딱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다.

최근 2005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SBS 김주희 아나운서의 파격적인 섹시 댄스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한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아나운서는 가죽 자켓과 핫팬츠를 입고 매혹적 댄스를 선보였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네이버들이 순식간에 폭파하면서 포털 사이트 인기 겸색이 순위에 올랐다.

네이버들의 반응도 단순한 관심 이상이다. '절제되고 딱딱한 이미지의 아나운서의 색다른 모습을 봤다'는 네이저과 '아나운서가 연예인인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네이버들의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분으로 맡고 있던 뉴스를 쉬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 비키니 몸매를 등을 드러내며 인터넷 상에서 아나운서 정체성 논란에 훨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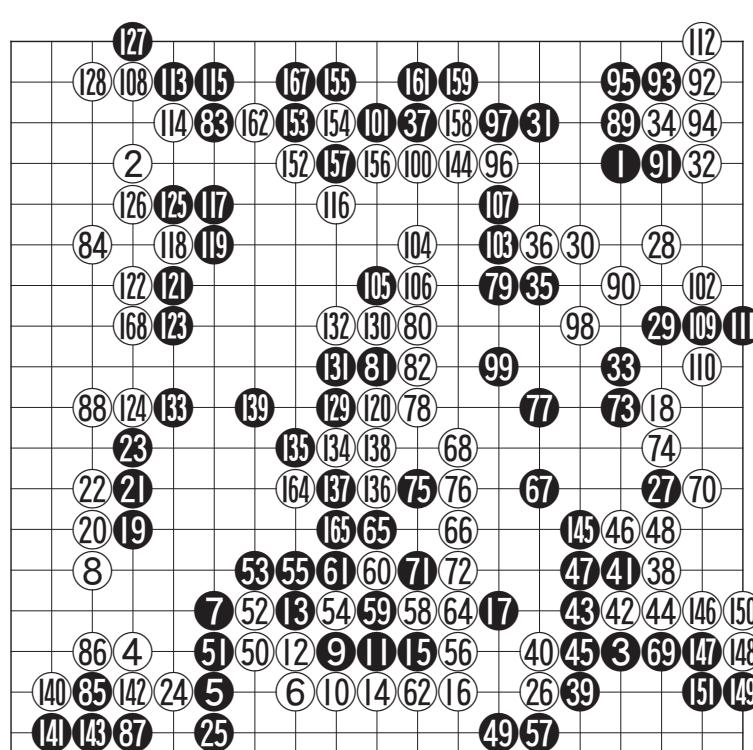
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자는 고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아나운서들이 잇따르고 있다.

MBC 이정민, KBS 김경란, SBS 김지연 아나운서 등은 패션 화보를 촬영했고, 노현정, 강수정, 박지윤, 백승주 아나운서 등은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다.

아나운서는 이제 아나운서와 민능 엔터테이너를 합친 '아나테이너'로 불리도 될 정도다.

/김지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 아나운서의 경우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제29회
전남도지사상에 바둑대회
여성부 결승

작전의 승리

총보(1~168)
白 김지연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김지연은 5단이나 김태현은 5단은 최근 몇년동안 아마추어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여류바둑계의 최정상급이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데다가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서 실전은 물론,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류바둑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들이다.

두선수는 고향과 학교 선수부에 서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바둑에 있어서 만큼은 여류바둑계 최고의 라이벌로 통한다. 최근 열린 여류대회에

서는 언제나 우승을 다투고 있을 정도다.

이 판도 이런 라이벌의식이 그대

로 드러나고 있다. 힘이 좋은 김태현

이 세력작전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마무리가 좋은 김지연은 예봉을 피하여 장기전을 꾀하고 있다.

초반 우상귀의 정석에서 김태현이 흑 35의 번석수로 싸움을 유도하자 김지연이 백 18 한점을 지점 움직이지 않고 38로 뛰어들어 48까지 우변을 차지한 것이 좋은 착상으로 일찌감치 백이 편한바둑이 되었다.

이후 김태현은 흑 49 이하로 파상 공격을 퍼부어 했으나 백이 80까지 무난하게 탈출한데다가 김지연의 작전대로 마무리에서 여러번 진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결국 백이 낙승을 거둔 판된다.

백 168수 이하생략. 백 8집반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윤준상, 국수전서 이창호 제압

윤준상 4단이 10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도전5번 기 제1국에서 이창호 9단에게 173수 끝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윤 4단은 이날 대국에서 수차례 고비를 맞았으나, 종반 좌변에서 빠아픈 실수를 범한 이 9단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 9단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LG배

8강전(대후야오위 8단)에서도 끝내기

실수를 범해 돌을 던진 바 있다.

제2국은 오는 31일에 열린다. 동아

일보사에서 주최하고 기아자동차에서 후원하는 국수전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17>

Actually, that was the first time~
사실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A: Did you see the article I wrote for the newsletter?
B: Yes, it was very good.
A: Actually, that was the first time I've written a news story. Usually I stick with fiction.
B: Well, I think you do both quite well.

A: 제가 신문사 대신 쓴 기사를 보았습니까?
B: 예, 아주 훌륭했습니다.
A: 사실 신문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소설을 고수해왔습니다.
B: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잘 쓰는 것 같습니다

newsletter : (회사단체 등의) 회보, 연보, 월보
article : 기사(=news story)
stick with : ~을 고수하다
fiction : 소설

오하이오 니흔고 <817>

あんまり無理(むり)すんなよ
너무 무리하지 말고

A: 包帯(ほうたい)巻(ま)いてるけどどうした?
B: いたしたことないけど腕(うで)がけがして。
A: 気をつけて! あんまり無理(むり)すんなよ。
B: はい! 先輩(せんぱい)!

A: 붕대를 감고 있는데 무슨일 있었어?
B: 별건 아니지만 팔을 다쳐서.
A: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B: 네! 선배님!

どうしたの→どうした
巻(ま)く에는 말다. 감다의 뜻이 있습니다
系(いと)を 묶다 : 실을 감다
のりまき : 깁밥

니하오 쪽구워 <8>

驚異我幫忙嗎?
제가 도와드릴까요

A: 惊異我幫忙嗎?
xīngyì wǒ bāngzhāngma
여기로 도와드릴까요?
B: 是的, 想帮忙。對呀。
yèsī xiǎngmángbāng, dàye
아로스 나를 헬프하오, 헬프란하오

A: 惊異我幫忙嗎?
xīngyì wǒ bāngzhāngma
여기로 도와드릴까요?
B: 你幫我簽印一下這些文件, 好嗎?
nǐbāngwàixiān yìyān xià zhèxiè wénjiàn, hǎoma
나에게 푸인 의사 서류에 원지연 하오마

A: 제 기도 와드릴까요?
B: 네,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좋지요.
A: 무언래 도와드릴까요?
B: 이 사무물품 좀 도와드릴까요?
mùwù lèi dàidǎilăo
사무물품 도와드릴까요?
mùwù lèi dàidǎilăo
사무물품 도와드릴까요?

물품 : 물건, 물건
사무 : 업무, 업무
물품 : 물건, 물건

한자 이야기 <435>

快刀亂麻 (쾌도난마)
쾌활 쾌, 칼 도, 어지러울 난, 삼 마

쾌도난마(快刀亂麻)는 '잘 드는 칼로 어지럽게 뒤엉킨 삼가닥을 단번에 잘라 버린다'는 뜻이다. 복잡한 사안을 명쾌(明快)하게 처리함을 비유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제(北齊)를 세운 고옹(高洋)에 관련된 고사(故事)에서 유래한다.

동위(東魏)의 효정제(孝靜帝) 때 승상으로 있던 고옹(高歡)이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풀어보라고 하였다. 다른 형제들은 뒤엉킨 실을 풀어내어 한 가닥으로 추리느라 분주하였다.

그러나 둘째 아들 고양(高洋)만은 칼을 뽑아 단번에 실타래를 잘라 버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보고 고옹은 둘째아들이 범상(凡常)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고양은 나중에 효정제를 몰아내고 복제를 세워 즉위하니, 그가 문선제이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나라당이 내건 4자성어가 '쾌도난마'이다. '밀운불우(密雲不雨)'처럼 어지럽게 뒤엉힌 국정 혼란을 단 한번에 시원스럽게 처리해 보겠다는 의욕의 표현이다.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한예원(韓睿嬪)>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⑤ 궁합이 안맞는다?

흔히들 연애나 특히 결혼상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인 외모, 학력, 직업, 가정환경, 종교 등 외에 '궁합'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궁합'은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유산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일종의 '미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신세대 할 것 없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종 많은 이들이 궁합을 궁금해하고 또 그 결과를 크게 염두에 두는 경향은 여전한 듯 하다.

또 자의타의된 일단 궁합을 보고 나면 누구에게나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마음을 흔드는 것도 사실이다.

위한 한 방편이었다. 운명은 자신이 할 나름으로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된다.

부모세대는 특히 이런 결과에 더 순응 또는 맹신하는 경향이 짙다.

현명한 젊은이라면 부모세대에게서 좋은 점만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나 전환점인 '결혼' 상대의 선택을 주술적이고 예언적인 점괘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세대의 지혜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총망발은 젊은이의 미래를 몇 년 전에 쓰여진 비과학적인 예언이나 주술 기준에 맡길 수는 없다.

자기 의지를 존중하라

특히 신년이 되면 잘 사귀던 연인이나 결혼을 앞둔 커플이 새삼스럽게 토정비결이나 궁합을 보고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웬지 모르게 트러블이 이어지다가 결국 해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인이나 반평생의 짜를 찾고 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첫인상 보다는 진중한 상대의 파악과 생활의 경험에 필요하며 외모보다는 깊은 내면과 품성을 들여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생활로 점을 보는 '궁합'보다는 서로 충분한 대화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솔직하고 냉정하게 서로를 맞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토정비결이나 점술가, 궁합 등에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자기의지를 존중하라. 생사의 길흉화복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토정비결이란 책도 토양 선생께서 도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재미로 보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결과를 연애나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절대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담 문명의 이기이며 사는 젊은이로서 일종의 '모순'된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하고 싶다. 혹 궁합의 결과가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평가나 사랑하는 감정을 누르고 몰라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함께 진지하게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이가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굳이 필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으며, 또 부담 없이 보았을 경우 굳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친밀감으로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서로 더욱 개선하고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곧 '궁합'이다.

결혼정보회사 닉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닉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뉴스퀴즈

46. 2007년 정해(丁亥)년을 맞아 유통기에서는 동물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재복이 넘치는 이 동물의 해로, 평생 만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유통업체 등에서는 이 동물을 내세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출산 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자신 중 가장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① 쥐 ② 소 ③ 호랑이 ④ 돼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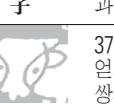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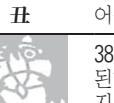
1월 11일(음 11월 23일乙巳)



36년생 중인 혼자 생활이 활성화된다.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60년생 부자는 미루다.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로 행운의 숫자 : 21, 25



37년생 부부간의 의견不合이 있다.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혼자 생활을 즐기고 싶다. 73년생 관파, 재파, 쟁파, 쟁파를 우려된다. 8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순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7, 26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환경이 필요하다. 62년생 흥미로운 어려움은 있으나 지루하다. 74년생 흥미로운 일에 흥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인정을 주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29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나 힘들다. 51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혼자 출세 실리를 찾아야 한다. 75년생 오늘은 행운의 숫자 : 12, 30

